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교회 100년의 발자취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사는 교회사학자이신 조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목적실에서 모입니다.

4월 27일 주일 오후에 선교회별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연과 음악회 그리고 사진전, 우편물 발송 등 준비로 분주한 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범 기독교계가 동참하는 <생명의 강 살리기 기독교 행동 출범식>이 18일(금) 오후 3시에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감리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신 조화순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과 평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군가에게 푸근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 현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정 반대의 길을 택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두운 그늘을 좇아 달려가며, 주님과 사귄 것보다 다른 일들을 더 좋아합니다.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의 악습을 태워주시고, 감미롭고 평온한 불꽃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주님, 달콤한 말로 우리 마음을 호리는 세속의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욕심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두려움의 결박도 풀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충실히 본받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화 세상의 전령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속에 하늘의 꿈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안정숙 장민숙 김재홍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용길 최영혜 박애순 백요현 배삼순
 권호천 서원금 윤미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최종미 조병주 김순복
 전영웅 문복순 최현선 정한구 권미숙 왕성황 강순배 이영란 오정숙
 전세중

월정헌금:

고속이 김명순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김윤정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송의섭 안길상 유중희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김수연 이인웅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하현철 최성애 이소순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오현정 조항범 우순덕 이인섭 문홍일 이미혜 방 민
 왕성환 강순배 윤종권 강승용 홍광근 정은영 오정숙 전세중 전성오
 신천권사일동 오래된미래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미순

100주년 기념헌금 :

한상의 정영선 김춘려 김순복 윤미경 최윤선 윤주원 우순덕 김영한
 이희균 배근수 김금순
 (100주년 헌금 누계 : 173,935,000원)

	장혜숙	장혜숙	오송경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이희균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박정숙	곽혜자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이인섭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현주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희정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이영란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박혜경

낙타는 제 걸음을 세지 않는다

-- 김수우

한 발짝을 마지막 발짝처럼 짚어
수천 킬로 황야를 건넌다
지독한 단조로움을 딛는 발굽은
늘 죽은 낙타를 밟고 있다
모래파도 일렁일렁 약속을 지워버려도
에미가 풀어간 새벽, 애비가 일구던 수만 리
무장무장 다져야함을 알아
발자국 많은 적막
끝내 가시꽃송이로 피우고 만다
가시꽃이 뜨거운 먼지와 매일 싸울 수 있는 건
잠잠히 낙타를 기다리기 때문
사하라는 속도를 믿지 않는다
저 무진장 침묵이 감춘 물길을 찾기 위해
무릎을 높이 세우되
눈은 낮게 떠야 한다는
입속말로 입속말로 자란 낙타
가슴근육이 팽팽하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십시오. 평화의 씨를 뿌리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분노가 아닌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헛된 정욕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뜻을 새겨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청파행전/조이제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 / 김윤정 집사	기도 / 이광섭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안홍숙 권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용길 이종현 윤성종 최영혜 김윤정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사로잡힌 느낌

오늘은 정말 지독하게도 울적한 기분이다.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나를 사로잡은 기분은 더없이 강력하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거세게 휘어잡고 있어 '빛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사람들이 내게 인사도 없이 떠나고, 이기적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편지하지 않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송별연회를 가지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전에 약속한 일들을 해주지 못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다.

갑자기 무엇을 잃어버리고, 연결고리가 끊기고, 잊혀지고, 외톨토리가 되고, 쓸모 없어지고, 조롱당한 것만 같고,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화나고, 회한이 일고, 오기가 생기고, 한없이 처량한 느낌이 든다. 실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내 감정적 균형이 이토록 심약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상태를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기가 이처럼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다.

오늘의 복음이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 만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빛을 보고 싶다면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니고데모야말로 영락없는 내 모습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요한 3:19)

내 안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괴상한 취향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빛 속으로 나아가기를 꺼리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에 파묻혀 좋아하고 있는 꼴이다. 예수께서는 빛을, 진리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밀고 계신다. 그분은 내게 거처할 굳건한 사랑을, 서 있을 단단한 토대를, 믿고 의지할 성실한 현존을 마련해주고자 하신다. 하지만 내면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나다.

그런데 이 모든 거부감은 어찌 된 것일까? 나를 끌어당기는 어둠의 이 강렬한 매력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예수는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

니다. 그것은 자기 행실이 폭로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갑니다.”(요한3:20-21)

이것은 내가 품은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빛보다 내 어둠을 선호하곤 한다. 내가 걷는 길들이 상당한 만족과 자신감, 상당한 자존심을 부여하는 까닭에 나는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이 제한된 쾌락들을 모두 잃고 내 삶을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삶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빛 속에서 산다는 것은 곧 선하고 아름답고 찬사받을 만한 것 일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좌절감에서 건져내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밖에 없다. 이것은 명확한 길인 동시에 대단히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시험받는 부르심

캐나다 '새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편지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곳에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거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집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대하던 생활방식 역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이처럼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판에 기분이 상하지 않기란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재화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가난의 길로 향하면 향할수록 예수께서 나와 더욱 가까이 계시리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가난이 가장 힘든 점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주님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병자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어올린 뱀을 쳐다보았듯이, 나도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날이 변하는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치유를 받고 기쁨과 평화를 마음속에서 찾아내리라는 기대 역시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선하심을 '목격하고 맛볼'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것들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